

# 일제 강점기의 경복궁(景福宮) 훼손과 복원사업

金 昌 俊

文化財管理局 施設書記官

## 목 차

- I. 경복궁의 창건(創建)
- II. 일제하의 경복궁 훼손
- III. 오늘의 경복궁
- IV. 경복궁 복원

### I. 경복궁의 창건(創建)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법궁(法宮)으로 태조 3년(1394) 12월 3일 개기제(開基祭)를 지낸후 공사를 시작하여 다음해인 태조 4년(1395) 9월 25일 준공되었다.

궁궐(宮闕)은 왕이 거처하고 정사(政事)를 관장(管掌)하던 곳이었으므로 국가와 왕실을 대표하고 그 권위를 상징하여 위엄있고 장엄하게 지어졌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3년(1394) 8월 친히 여러 중신들을 거느리고 서울에 와서 새 도읍지를 둘러보고 개경으로 돌아가서 「신도궁궐조성도감(新都宮闕造成都監)」이라는 궁궐건축을 위한 임시기구를 설치하고 심덕부(沈德符), 김진(金溱), 이념(李恬), 이직(李稷)등으로 하여금 궁궐조성을 담당케하였다. 뒤이어 권중화(權仲和), 정도전(鄭道傳), 沈德符(심덕부), 김진(金溱), 남은(南暉), 이직(李稷), 등을 한양으로 보내어 궁궐과 종묘(宗廟), 사직(社稷), 도로(道路)를 정하게 하였고 그해 9월 9일에는 권중화(權仲和) 등이 궁궐과 종묘의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작성하여 개경으로 돌아갔다. 이에 대한 실록(實錄)의 기사를 보면 「전조(前朝) 숙왕(肅王)(고려(高麗) 숙종(肅宗) 1096 ~ 1105)때 영건(營建)하였던 궁궐지(宮闕地)가 협애(狹隘)하므로 다시 그 남쪽을 찾아 보았는데 해산(亥山)을 주산(主山)으로 하여 임좌병향(壬坐丙向)이며 광활(廣闊)하여 군룡(郡龍)이 조읍(朝揖)하니 면세(面勢)가 잘 되었다」고 하였다.

같은 해 10월 25일 한양에 도읍지를 정하고 종묘와 궁궐은 위치만을 정한채 개경을 떠난 왕실(王室)과 중신(重臣)들은 10월 28일 한양에 도착하여 한양부(漢陽府) 객사(客舍)를 이궁(離宮)으로 삼아 정무(政務)를 집행하였고 11월 3일에는 공작국(工作局)을 설치하여 영건(營建)의 일을 맡게하였고 12월 3일에는 정도전(鄭道傳)과 김입견(金立堅)으로 하여금 종묘와 궁궐의 기공(起工)을 황천후토(皇天后土)와 산천제신(山川諸神)에게 제사(祭祀) 드려 아뢰게 하고 4일에는 첨서중추원사(僉書中樞院使) 권근(權近)으로 하여금 궁궐 지을 곳에 나가 개기제(開基祭)를 거행하게 하고 승도(僧徒)들을 모집하여 공역

(工役)을 시작하게 되었다.

태조 4년(1395) 8월에는 경기도의 인부 9,500명, 충청도 인부 5,500명을 징집하여 궁궐 건축공사를 급진전시켜 그해 9월 완성을 보게 되었다. 이때 건립된 건축물은 정전(正殿)을 비롯하여 연침(燕寢)·보평청(報平廳)·전문(殿門)·오문(午門)·각종회랑(廻廊)·누각(樓閣)·주방(廚房)·중추원(中樞院)·삼군부(三軍部)등 총 390여칸에 이르렀다.

같은 해(1395) 12월에는 왕실과 조정대신들이 한양객사(漢陽客舍) 건물에서 새로 지은 궁궐로 옮겨 신도(新都)에서 새로운 면모와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태조의 하명을 받아 정도전은 궁궐과 전각들의 이름을 지었다. 새 궁궐을 경복(景福)이라 하였다. 임금의 침전을 강녕전(康寧殿), 동쪽의 작은 침전을 연생전(誕生殿), 서쪽의 작은 침전을 경성전(慶成殿)이라 하고, 침전의 남측에 있어 왕이 정사를 보는 전(殿)을 사정전(思政殿), 그 남측에 있는 궁의 정전(正殿)을 근정전(勤政殿)이라 했다. 동루(東樓)는 융문(隆門), 서루(西樓)는 융무루(隆武樓)라 했다. 전문(殿門)은 근정문(勤政門)으로 정문(正門)을 했다.

그러나 실록의 기록으로 보아 궁성수축(宮城修築)은 궁궐이 낙성된 2년 후인 태조 6년(1397) 겨울부터 시작하여 정종(正宗) 1년(1399) 1월에도 궁성의 역사(役事)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태종(太宗)이 왕위(王位)에 오른 후 개경(개경) 이도(移都)와 한경(漢京) 환도(還都)의 논의가 여러차례 있던 후 태종 4년(1404) 10월 다시 한경환도(漢京還都)의 확정으로 이궁(離宮)인 창덕궁(昌德宮)을 영건(營建)케 하여 다음 해 10월 개경으로부터 창덕궁에 입어(入御)하였다. 그 후 경복궁은 수시로 수리하여 그 면모를 유지해왔다.

1411년 9월 어구(御溝)를 파서 금천(禁川)에 명당수(明堂水)를 끌어들이고 1412년에는 경회루(慶會樓)를 건축(建築)하였다.

경회루 자리에는 원래 작은 누각(樓閣)이 있었는데 지대가 습(濕)하여 태종이 친히 나가보고 공조판서(工曹判書) 박자청(朴子靑)에게 명하여 개수케 하였다. 박자청은 원래의 위치에서 조금 서쪽으로 터를 넓히고 규모도 크게 하였다. 그 주위에는 연못을 파고 물고기를 길렀다. 경회루의 공역은 1412년 3월, 4월에 이루어졌는데 영의정부사(領議政府使) 하륜(河崧)에게 기문(記文)을 짓게하고 양녕대군(讓寧大君)으로 하여금 현판(懸板)을 쓰게 하였다.

세종(世宗) 8년(1426)에 집현전(集賢殿) 문신(文臣)들에게 명하여 문과 다리들의 이름을 정하게 하였다. 궁의 남쪽문을 광화문(光化門), 동쪽문을 건춘문(建春門), 서쪽문을 영춘문(迎春門), 광화문 안쪽 궁의 제2문을 홍례문(弘禮門), 그 좌우문을 일화문(日華門)·월화문(月華門)이라 하고 홍례문과 근정문 사이의 다리를 영제교(永濟橋)라 하였다.

세종 11년(1429)에는 사정전과 경회루의 중수(重修), 13년(1431)에는 광화문의 개축(改築), 14년(1432)에는 문소전(文昭殿)의 신축(新築), 15년(1433)에는 강녕전의 개축과 경복궁의 북문(北門)인 신무문(神武門)의 신축, 16년(1434)에는 보루각(報漏閣)의 설치, 20년(1438)에는 흠경각(欽敬閣)의 조성과 선원전(璿源殿)이 이축(移築) 등이 있었다. 이렇게 세종은 많은 전각(殿閣)들을 개수 조영(造營)하였고 궐내(闕內)에 많은 과학문화이기(利器)들을 설치하므로서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法宮)으로 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세조(世祖) 7년(1461) 11월에는 세자궁(世子宮)을 영조(營造)키로 하여 세조 8년

(1462) 12월에 완공되었다. 세조 2년(1456) 3월, 후원(後苑)에 신정(新亭)을 건립하여 취로정(翠露亭)이라 하고 정자 앞에 연못을 파서 연(蓮)을 길렀다.

성종(成宗) 4년(1473) 7월 제조(提調) 낭청(郎廳)을 설치하고 성종 5년(1474) 3월에 경회루를 수리하였다.

그 해 8월에 다시 경회루를 수리하였는데 이 공사는 실록의 기록으로 보아 경회루 석주상(石柱上)에 용(龍)을 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산군조(燕山君朝)에는 경복궁 내에 있었던 보루각(寶樓閣)을 창덕궁(昌德宮)으로 옮기고 간의대(簡儀臺)를 철거하였으며 경회루 연못에 만세산(萬歲山)을 조산(造山)하였다.

중종(中宗) 38년(1543) 1월에는 동궁(東宮)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명종(明宗) 8년(1553)에 다시 큰 화재가 발생하여 강녕전(康寧殿)·사정전(思政殿)·흠경각(欽敬閣) 등이 소실되어 명종 9년(1554) 8월에 흠경각이 복구되었다. 이어 내전전각(內殿殿閣)의 중건(重建)은 12월에 완료되었다.

그 후 선조(宣祖) 25년(1592) 4월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 경복궁은 대화(大火)를 입게 되었고 270년간 복구되지 않은채 폐허로 남아있었다.

경복궁의 중건이 논의된 것은 고종(高宗) 2년(1865) 4월 대왕대비(大王大妃)(조대비(趙大妃))에 의해 발의(發議)된 중건교서(重建敎書)에서 부터였다. 그 해 4월 13일에 중건 공사가 시작되었다. 고종은 하루 전날 궁전(宮殿) 구기(舊基)로 친심(親審)하였고 13일 인시(寅時)에 기공(起工)하였는데 먼저 황폐한 궁전(宮殿) 기지(基地)를 정리하고 구기(舊基)를 따라 궁성(宮城)을 쌓았으며 이어서 성문(城門)과 내전(內殿)을 건축하는 공사가 시작되었다. 중건공사는 궁성축조(宮城築造)·내전건축(內殿建築)에 이어 외전(外殿)·경회루(慶會樓)·별전(別殿)·행각(行閣)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4~5월에는 기반정비 및 석재·목재의 반입과 가공에 주력하였다. 6월 20일 궁성(宮城)의 수축(修築)과 교태전(交泰殿)의 정초(定礎)가 있으면서부터 공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신무문(神武門)이 1865년 9월 22일, 광화문(光化門)·인지당(麟趾堂)·교태전(交泰殿)·강녕전(康寧殿)·연생전(延生殿)·경성전(慶成殿) 등이 10월 11일, 함원전(含元殿) 11월 16일, 영추문(迎秋門) 10월 25일, 천추전(千秋殿) 12월 9일, 자미당(紫薇堂) 12월 15일, 건춘문(建春門)·소동문(小東門)이 12월 25일, 상량(上樑)되었다. 1866년 2월에 만춘전(萬春殿)의 입주(立柱) 상량(上樑)이 있었고 6월에는 정전(正殿)인 근정전(勤政殿)과 사정전(思政殿)의 영건(營建)을 위한 개기(開基) 축대공사(築臺工事)가 있었다. 고종 4년(1867) 중건공사는 활기를 찾아 근정전·사정전 외에 근정문(勤政門)·홍례문(弘禮門)이 1월 19일, 경회루 4월 20일, 자선당(資善堂) 6월 28일, 수정전(修正殿) 6월 29일, 선원전(璿源殿)이 12월 7일 각각 상량되었다. 기공후 3년 만인 고종 4년(1867) 겨울까지 중건의 주요공사는 완공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 때 공사는 내외전(內外殿) 본건물(本建物)은 물론이려니와 부속 건물인 누각(樓閣)·행각(行閣)·문(門)들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궁궐(宮闕)내의 일부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다음 해인 고종(高宗) 5년(1868) 6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기공(起工) 후 3년 4개월 만인 7월 2일에 경복궁으로 이어(移御)가 실현되었다.

경복궁 중건이 대체적으로 준공되고 이어(移御)한 후에도 궁내(궁내)의 공역(공역)은 계속되어 고종 10년(1873)에는 궁성(宮城)안 북쪽에 건청궁(乾靑宮)이 지어졌다.

또한 1873년 12월에 자경전(慈慶殿)이 화재로 소실(燒失)되어 이듬해에 중건되었다. 1876년 11월에 다시 큰 불이 일어나 교태전·강녕전·함원전·자경전·옹지당·건순각(建順閣)·자미당·덕선당(德善堂)·협경당(協慶堂)·복안당(福安堂)·순희당(純熙堂)·연생당(延生堂)·흠경각·홍월각(虹月閣) 등 내전일곽(內殿一郭)의 전각 모두가 소실되었다. 1888년 봄부터 영건(營建)공사를 착수하였다. 4월에 교태전·강녕전·옹지당·자미당의 상량문(上樑門) 제술관(製述官)·현판(懸板) 서사관(書寫官)이 임명되고 자경전·함원전·경성전·연생전·흠경각의 정초(定礎)가 있었고, 7월에는 모든 사가(私家)의 토목(土木)일을 금하고 궁전공역(宮殿工役)에 총력을 기울이게 하여 경복궁 내전(內殿)은 다시 면모를 되찾게 되었다. 그러나 고종은 1896년 1월 세자(世子)와 함께 경운궁(慶運宮)(덕수궁(德壽宮))으로 거처를 옮겼다. 결국 경복궁은 임금의 덕수궁 이어(移御)로 중건 후 30년에 폐궁(廢宮)으로 변하였다.

## II. 일제하의 경복궁 훼손

1910년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후 궁내(宮內)의 많은 전각들을 방매(放賣)하기까지 하였다. 건춘문 안에 있던 조현각(顯閣)<sup>1)</sup>이 장충동의 남산장(南山蔭) 별장(別莊)으로 옮겨지고 그 밖에도 많은 건물들이 일본인들의 요리점이나 사찰로 탈바꿈하였고 남산동(南山洞)·필동(筆洞)·용산(龍産) 등지의 일본인 주택으로 옮겨졌다.

또한 1915년 가을에는 일제(日帝)의 이른바 시정5주년기념사업(施政5周年記念事業)으로 조선물산공진회(朝鮮物産共進會)를 경복궁에서 개최하여 궁궐은 유린되고 궁궐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제(日帝)의 횡포는 갈수록 심해져 근정전을 비롯한 교태전·경희루까지도 일제에 이용당하고 궁궐내의 넓은 땅을 사용하기 위해 많은 건물들을 철거하고 5,200여평에 달하는 진열관(陣列館)을 새로 짓고 그 정원에 고대유물(古代遺物)인 각종 석탑(石塔)·부도(浮屠)·불상(佛像) 등을 옮겨 놓았으며 음악당(音樂堂)까지 설치하였다. 그리고 일제는 공진회(共進會)를 근정전·교태전 등에서 개최(開會)하고 귀빈실로 이용하였다. 특히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공진회 회기(會期)중 개막식(開幕式)이 근정전에서 이루어졌고, 이대 총독 사내정의(總督 寺內 正毅)는 오만방자하게 전내(殿內)의 용상(龍上)에 앉아 경과보고와 개회사(開會辭)를 하였다. 1916년부터는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청사 건축공사가 경내(境內)에서 기공되어 궁궐 전면에 남아있던 흥례문(興禮門)과 좌우의 회랑(回廊)·유화문(維和門)·용성문(用成門)·협생문(協生門)들이 헐리고 금천교(禁川橋)도 없어지고 말았다. 조선총독부청사는 1926년 낙성하여 경복궁의 남북 주축을 가로막아 왕궁을 압도하게 하였고 1927년 9월 15일에는 왕궁(王宮)의 정문(正門)인 광화문을 건춘문 북쪽으로 옮겨 경복궁을 완전히 맥이 끊기게 하였다.

또한 1917년 11월에 창덕궁에 큰불이 일어나 대조전(大造殿)을 비롯하여 흥복헌(興福軒)·통명문(通明門)·양심각(養心閣)·장순문(蔣順門)·희정당(熙政堂)·찬대당(贊待堂)·내전창고(內殿倉庫)·경동각(景董閣)·징광루(澄光樓)·옥화당(沃華堂)·정목당(靜

1) 1)비현각에 대한 또다른 기록은 일본인 건축가 나카무라 요시헤이(중촌여자평(中村與資平), 1880~1963)가 1912년 봉래동(蓬萊洞)(蓬萊畑 4丁目) 자기집으로 뜯어가 설계사무소로 사용하다가 누전으로 불타버렸다는 기록이 있음.

默堂)·요화문(曜華門)·요취문(曜暉門)·함광문(含光門) 등 많은 건물들이 소실되었다. 이의 증건을 위해 1918년부터 1920년 사이에 경복궁 내전의 교태전·강녕전·경성전·연생전·만경전·홍복전·함원당·연길당·옹지당·흠경각 등 여러 전각들을 헐었다.

1925년 5월에는 신무문 북쪽에 있던 용무당(隆武堂)·용문당(隆文堂) 등이 헐려 한강로(漢江路)의 용광사(龍光寺) 건물로 변하고 1932년 10월에는 건춘문 서북쪽에 있던 선원전(璿源殿)을 헐어 장충동(獎忠洞)의 박문사(博文寺)로 짓는 등 일제는 경복궁 훼손의 만행을 계속하였다.

이와같이 일제는 경복궁 안의 4000여간(間)의 건물들을 방치(放置)하거나 철거하였으며 1935년부터는 봄철에 궁성내(宮城內)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조선왕궁(朝鮮王宮)의 존엄성을 말살하였다.

그리고 일제는 궁내에 이질적인 근대시 건물들을 지어 궁을 유린하였다. 이 때 건축된 건물들은 아래와 같다.

#### 1) 조선총독부청사(朝鮮總督府廳舍)

1916년 6월~1926년 10월에 건축, 건축면적은 2,219평, 연면적은 9,306평, 지상 5층, 5층까지 건물 높이 22.5m, 옥탑돛까지 47.9m, 전면길이 128.3m, 측면길이 68.7m, 총독부청사를 건립한 후 1938년에 근정전 서쪽에 있었던 승정원(承政院)과 선전관청(宣傳官廳)을 철거하고 그 터에 제1별관(건평 245평, 연건평 994평, 4층)과 제3별관(건평 171평, 연건평 8.62평, 4층) 및 문서고 등을 건립하였음.

#### 2) 조선총독부박물관(朝鮮總督府博物館)

1915년 일제가 조선총독부 시정5주년 기념 물산공진회의 미술관으로 건립하여 물산공진회를 마친후 박물관으로 사용, 건평 409평, 2층 철근콘크리트조, 동판지붕, 외부를 돌과 인조석으로 마감. 1995년에 철거됨.

#### 3) 조선총독부박물관(朝鮮總督府博物館) 부속건물

1915년 박물관 창고로 건립, 연건평 163평. 2층 벽돌조의 합석지붕, 현재 경복궁 관리사무소로 사용.

#### 4) 조선총독부 미술관(朝鮮總督府 美術館)

1939년 일제가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건립, 건평 991평. 1층 벽돌조에 한식기와지붕을 70년대에 스페니쉬 기와로 개조하였음. 국립민속박물관(國立民俗博物館)으로 사용하다가 1995년부터 한국전통공예미술관으로 사용됨.

그리고 일제는 전국의 사원(寺院)에 있었던 탑(塔)·부도(浮屠)·석비(石碑)·등을 궁안으로 이관하였다.

① 경천사지십층석탑(□天寺地十層石塔)(국보 제86호) : 경기 개풍군 소재. 일제때 일본으로 반출된 것을 1960년에 반환.

② 봉림사진경대사보월릉공탑(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보물 제362호) : 경남 창원군 소재 1919년 이관.

③ 봉림사진경대사보월릉공탑비(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보물 제363호) : 경남 창원군 소재 1919년 이관.

- ④ 정토사흥법국사실상탑(淨土寺興法國師實相塔)(국보 제102호) : 충북 증원군 소재 1915년 이진.
- ⑤ 정토사흥법국사실상탑비(淨土寺興法國師實相塔碑)(보물 제359호) : 충북 증원군 소재 1915년 이진
- ⑥ 서울 홍제동오층석탑(弘濟洞五層石塔)(보물 제 166호) : 서울 홍제동 소재, 1970년 이진
- ⑦ 고달사지쌍사자석등(高達寺地雙獅子石燈)(보물 제 282호) : 경기 여주군 소재, 1959년 이진
- ⑧ 봉인사사리탑(奉印寺舍利塔) 및 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 : 경기 남양주군 소재, 일제 때 일본 대판시립미술관(大阪市立美術館)에 반출된 것을 1987년 반환.
- ⑨ 영전사지보제존자사리탑(令傳寺地普濟存子舍利塔)(보물 제358호) : 강원 원주군 소재, 1915년에 이진(동탑(東塔) 및 서탑 2기(西塔2基))
- ⑩ 거둔사원공국사승묘탑(居頓寺圓空國師勝妙塔)(보물 제190호) : 강원 원주군 소재, 1948년에 이진.
- ⑪ 흥법사진공대사탑부석관(興法寺眞空大師塔附石棺)(보물 제365호) : 강원 원주군 소재, 1931년에 이진.
- ⑫ 월광사원랑선사탑비(月光寺圓朗禪師塔碑)(보물 제360호) : 충북 제천군 소재, 1922년에 이진.
- ⑬ 전흥법사렴거화상부도(傳興法寺廉居和尚浮屠)(국보 제104호) : 강원 원주군 소재, 일제 때 탑골공원 이진, 경복궁에 재이진.
- ⑭ 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국보 제101호) : 강원 원주군 소재 일제 때 일본에 반출된 것을 다시 반환하여 경복궁에 이진.
- ⑮ 보제사문경대사탑비(菩提寺文鏡大師塔碑)(보물 제361호) : 경기 양평군 소재, 일제 때 이진
- ⑯ 천수사오층석탑(泉水寺五層石塔) : 강원 원주군 소재, 일제 때 이진
- ⑰ 남계원오층석탑(南溪院五層石塔)(국보 제100호) : 경기 개성군 소재, 1915년에 이진.
- ⑱ 산청범학리삼층석탑(山靑泛鶴里三層石塔)(국보 제105호) : 경남 산청군소재, 1947년에 이진.
- ⑲ 정토사오층석탑(淨土寺五層石塔) (보물 제357호) : 경북 칠곡군 소재, 1924년에 이진.
- ⑳ 감항사삼층석탑(葛項寺三層石塔) (국보 제99호 ) : 경북 금릉군 소재, 1916년에 이진( 동탑(東塔) 및 서탑 2기(西塔2基))
- ㉑ 나주서문석등(羅州西門石燈)(보물 제364호) : 전남 나주군 소재, 1929년에 이진.
- ㉒ 현화사석등(玄化寺石燈) : 경기 재풍군 소재, 1911년 덕수궁에 이진 1972년에 경복궁에 이진
- ㉓ 안흥사삼층석탑(安興寺三層石搭) : 경기 이천군 소재, 1916년에 이진.
- ㉔ 보신각종각주초석(譜信閣鍾閣柱礎石)) : 서울 종로구 소재, 1972년에 이진.

### Ⅲ. 오늘의 경복궁

북궐도형(北闕圖形)에 도시(圖示)된 건물의 수는 509동(棟) 6,806간(間)이고 북궐도형 제작 당시에 이미 이전되었거나 훼손된 건물의 수는 113동 1,301간(間)으로 조선총독부 건립 이전까지 남아 있었던 건물의 수는 396동 5,505간(間)이었다. 현재 남아있는 건물의 수는 40동 857간(間)으로 일제때 철거되거나 궁(宮)밖으로 이건(移建)된 건물은 356동 4,648간(間)이 된다. 현재 남아 있는 전각은 다음과 같다.

#### 1) 광화문(光化門)

경복궁 남쪽의 정문으로 조선 태조 4년(1395)에 창건. 임진왜란때 소실. 고종 2년(1865)10월 재건. 1926년 조선총독부 건립으로 건춘문 북쪽에 이건. 1950년 한국동란때 문루가 소실되고 홍예기단만 남아 있다가 1968년에 현 위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재건되었다.

#### 2) 건춘문(建春文)

경복궁의 동문으로 고종 2년(1865) 재건.

#### 3) 영추문(迎秋門)

경복궁의 서문으로 고종 2년(1865) 재건. 1927년 훼손. 1975년 문루를 콘크리트로 복원.

#### 4) 신무문(神武門)

경복궁의 북문으로 고종 2년(1865) 재건.

#### 5) 동십자각(東十子閣간)

경복궁 동남측 궁담 모서리에 있었던 망루 건물로서 고종 2년(1865)에 재건. 1926년 광화문이 이건되고 조선총독부청사 정문과 담장이 궁 안쪽으로 설치되면서 궁장에서 이탈되어 현재와 같이 도로 한가운데 위치하게 됨.

#### 6) 근정전(勤政殿)

경복궁의 정전(正殿)으로 고종 4년(1867)에 재건.

#### 7) 근정문(勤政門)

근정전의 정문으로 고종 4년(1867)에 재건.

#### 8) 근정전회랑(勤政殿廻廊)

근정전을 둘러싸고 있는 회랑으로 고종 4년(1867)에 재건. 동회랑(東廻廊)에 용문루(隆文樓)가 있고 서회랑(西廻廊)에 용무루(隆武樓)가 있음.

#### 9) 사정전(思政殿)

편전(便殿)을 고종 4년(1867)에 재건.

10) 사정문(思政門)

사정전의 정문으로 고종 4년(1867)에 재건.

11) 사정전남행각(思政殿南行閣)

근정전과 사정전 사이에 있는 행각으로 각 간(間)은 칸막이가된 고(庫)로서 서쪽으로부터

천자고(天字庫)·지자고(地字庫)의 순으로 현판이 붙어있음.

12) 사정전북행각(思政殿北行閣)

사정전과 북평의 강녕전 사이에 있는 행각

13) 천추전(千秋殿)

서편전(西便殿)으로 고종 2년(1865)에 재건

14) 만춘전(萬春殿)

동편전(東便殿)으로 고종 3년(1865)에 재건. 1950년 한국동란때 파괴되어 기단만 남아 있던 것을 1986년 복원.

15) 수정전(修政殿)

고종 2년(1865)에 재건.

16) 무명각(無明閣)

수정전 남측에 있는 이름 없는 건물이라 무명각이라함. 일제시 건축한 것으로 추정. 1997년 철거.

17) 경회루(慶會樓)

연회장으로 사용했으며 고종 4년(1867)에 재건.

18) 하향전(荷香殿)

경회루 연지(蓮池)의 북쪽 호안에 있는 정자로서 1958년대에 건축됨.

19) 자경전(慈慶殿) 및 행각(行閣)

신정왕후(神貞王后) 《조대비(趙大妃):순조 8년(1808)~고종 27년(1890)》의 처소로서 고종 2년(1865) 재건

20) 제수각(齊壽閣)

자경전의 별당(別堂)으로 고종 2년(1865) 재건

21) 함화당(咸和堂)

건청궁(乾靑宮)의 별당(別堂)으로 고종 10년(1873) 재건



22) 집경당(緝敬堂)

건청궁의 별당으로 고종 10년(1873) 재건

23) 향원정(香遠亭)

고종 10년(1873) 건립된 2층의 육각정(六角亭), 주변에 연지를 둘러 뒀으며 건립당시 향원교가 북쪽으로 건청궁쪽으로 설치되었으나 현재는 남쪽으로 변형되어 있음.

24) 집옥재(集玉齋)

고종 10년(1873)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 건청궁의 별당으로 고종의 외국사신접견장소. 중국 청나라때의 건축양식으로 건립된 궁내의 유일한 건물.

25) 협길당(協吉堂)

고종의 서재(書齋)로 고종 10년(1873)에 건립

26) 팔우정(八隅亭)

건청궁의 장서고(藏書庫)로 고종 10년(1873)에 건립

27) 동정문

영추문을 재건하기전에 경복궁의 서측 출입문으로 사용했다가 영추문을 재건하면서 1975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지음.

#### IV. 경복궁 복원사업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法宮)으로 당대의 문화와 기술의 총력을 발휘하여 이룩한 최고의 영조물이다. 또한 조선왕조가 한양에 도읍을 정한이래 600년에 걸쳐 고도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민족적 기상과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다. 세종대왕은 1446년 10월 9일 이곳 집현전에서 한글을 창제 반포하였으며 세계 최초의 측우기와 물시계인 자격루를 비롯한 각종 당시 첨단 과학기들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우리 겨레의 문화적 긍지가 깃든 곳이다.

경복궁 복원사업은 일제가 파괴, 변형시킨 경복궁을 복원정비하여 조선정궁의 기본궁제를 보존하고 우리문화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적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 복원공사는 '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에 걸쳐 총사업비 1,789억원이 투입되는데 단위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최대 규모이다. 복원을 위해 '90년에 침전지역의 발굴조사사업을 시작으로 '91년부터 본격적인 복원사업을 추진하였다. '95년까지 침전지역인 강녕전과 교태전을 비롯하여 연생전·연길당·경성전·흙경각·응지당·함원전과 침전 부속 건물들을 복원하고, '98년까지 왕세자의 생활공간인 동궁지역의 자선당과 비현각을 복원한다. 구조선충독부 철거와 30경비단 이전계획과 연계하여 흥례문과 주위회랑, 태원전 지역 그리고 광화문을 복원할 계획이다.

## 1. 복원 기본방향

경복궁 복원 기준연대는 고종때 경복궁 중건이 완료되는 1868년(고종 5년)을 기준으로 한다. 경복궁이 창건되는 태조때나, 조선의 문화가 활짝피던 세종 또는 영·정조때를 복원의 기준연대로 설정할 수 있겠으나 그 당시의 경복궁에 대한 남아있는 기록들이 많지않고 현재 남아있는 현존건물들과 지반 높이와 건물양식 및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서로 맞지않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 현존하는 복원자료가 풍부하고 남아있는 건물들과 잘 조화되는 기점인 고종 때를 복원 기준연대로 설정한 것이다.

조선고적도보의 사진과 도면화된 경복궁전도, 북궐도형과 궁궐지, 조선왕조실록 등을 참고하고 발굴조사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복원한다. 복원의 기본적인 방침은 정전과 편전·침전·동궁 등 조선정궁의 기본궁제를 복원하고 조선의 우수한 과학기술문화재를 재현하며 경내의 시멘트 구조물 등 궁에 맞지 않는 현대식 시설물들은 전부 철거한다. 궁의 변형된 지형을 복구하고 일제때 궁내에 이진된 탑·부도 등은 경외로 이설하며 전통궁궐 조원의 특성을 살려 조경정비한다.

복원순서는 참전과 동궁 등 주요 건축물들을 먼저 복원하고 외조등 주변 건물들을 순차적으로 복원한다.

## 2. 복원자료

복원에 필요한 고증자료는 궁궐지, 조선왕조실록, 대한제국 말기와 일제때 작성된 실측조사도면 및 보수공사도면, 진찬도(進饌圖)의 그림, 대한제국 말기에서 일제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관련사진과 발굴조사자료 등이 있다.

### 1) 궁궐지(宮闕誌)· 궁궐지(宮闕誌)

궁궐지는 경복궁·창덕궁·창경궁 등 조선의 궁궐에 대한 연혁과 전각들의 용도 및 기본적인 규모 등은 기록해 놓은 책이다. 궁궐지(宮闕誌)는 인쇄본과 필사본 두가지가 있는데 전 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궁궐지(宮闕誌)는 인쇄본으로 전 2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궁궐지(闕誌)는 헌종(憲宗)때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 임란이전의 기록들이다.

궁궐지(宮闕誌)는 전각들의 이름과 간수(間數)·척량(尺量)·궁담칸수 등을 기록해 놓은 문헌으로 고종의 경복궁 중건 이후 모습에 대한 기록이므로 금번 복원정비계획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편찬시기는 구한말로 보이나 기록된 전각수가 북궐도형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보아 그 시기가 북궐도형 제작시기보다 앞선 것으로 판단된다.

### 2) 북궐도형(北闕圖形)

북궐도형은 광화문에서 신무문까지를 그린 경복궁 배치도인데 간수구획(間數區劃)이 되어있고 전각과 문의 명칭, 실 용도(室 用度), 중요건물의 층수, 주간(柱間), 주장(柱長), 양식(樣式) 등이 기록되어 있어 경복궁 복원과 경복궁의 건축물들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궁의 북측 신무문 후측에 있는 경복궁 후원(後苑)을 그린 북궐후원도형(北闕後苑圖形)이 있다. 이 두 도형을 합치면 경복궁의 전체 모습을 알 수 있다. 크기는 북궐도형이 280cm×432cm, 북궐후원도형이 283cm×228cm이다. 두 도형은

붉은 선으로 11mm×11mm의 방안을 그린 바탕위에 먹선으로 건물평면을 그리고 글씨는 세필(細筆)로 정교하게 써넣었다. 작성시기는 건청궁이 건립된 고종 10년(1873) 이후부터 비현각이 이전되는 1910년 이전의 것으로 추정된다, 복궤도형은 궁궤지(宮闕誌)와 함께 경복궁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복원정비 계획수립에 기본 자료가 된다.

### 3)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조선총독부에서 주관하여 조선의 문물을 조사 정리한 자료집으로 비록 일제가 조선을 강점통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작성한 자료지만 오늘날 그 당시의 사진기록들이 남아 있으므로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전체 15권으로 첫째 권이 1915년에 발간되었고 마지막 권이 1935년에 발간되었다.

경복궁·창덕궁·창경궁·경희궁 등 궁궤에 관한 자료집인 제 10권은 1920년에 발간되었다.

### 4) 일제시대 실측조사 도면

일제때 우리나라 전국의 궁궤·사찰·성곽·객사 등 주요 건축물들을 실측조사하거나 보수 설계한 도면이다. 현재 450여장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중이다. 이중 경복궁 관련도면은 모두 18장이다.

### 5) 회화(繪畵)

경복궁근정전진찬도(景福宮勤政殿進饌圖), 경복궁강녕전진찬도(景福宮康寧殿進饌圖) 등에 전각들의 그림이 남아있다.

### 6) 발굴(發掘)에 의한 지하유구(地下遺構)

가장 정확하게 경복궁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경복궁 복원에 대한 세부 양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경복궁 침전지역 발굴조사 보고서, 1995년 문화재관리국)

## 3. 용 척(用尺)

건물의 복원을 위해서는 당시 사용한 기본단위척(基本單位尺)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남아있는 근정전·자경전·사정전·천추전·수정전·경희루의 주간(柱間)을 실측조사하여 궁궤지(宮闕誌)에 기록되어 있는 주간척도(柱間尺度)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그리고 박물관 소장 도면중 강녕전과 교태전의 주간실측치(柱間實測值)와 발굴조사를 통해 얻은 강녕전의 주간 실측자료도 궁궤지(宮闕誌)의 주간척도로 나누어 조사검토하였다. 그리고 경복궁의 강녕전과 교태전을 이전하여 지은 창덕궁 회정당과 대조전의 주간도 분석하였다.

조사 분석결과 용척의 크기가 305mm에서 314mm까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건립연대의 차이, 시공오차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수정전에서 305mm, 근정전과 근정전 행각, 자경전, 경희루, 일제때 조사된 교태전 도면과 창덕궁의 회정당·대조전 두 건물에서 307mm, 사정전·천추전·강녕전 발굴조사 실측치에서 308mm, 자경전 주위 행각에서 312mm, 313mm, 사정전 주위 행각에서 일부 314mm 크기의 기본단위척(基本單位尺)의 사용 가능

성이 조사되었다. 이 조사 결과 307mm가 대체로 경복궁 중심건물들과 현존 건물을 대다수에 기본단위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복원사업에도 307mm를 기본단위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단계별 복원계획

복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으로 구분하고 단기계획은 5단계로 나누어 추진함으로써 복원공사가 권역별로 시행될 수 있게 계획하였다.

##### 1) 단기복원계획(短期復元計劃)

단기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은 첫째 경복궁의 기본궁제(基本宮制) 복원정비이다. 침전일곽과 동궁일곽 그리고 흥례문과 태원전 일곽을 복원정비한다. 둘째 기본 전각들의 보수를 병행하며 주변의 소실된 행각도 복원한다. 셋째 원래의 모습을 잃고있는 궁담 일부도 복원하고 넷째 남북 중심주축상의 중요 전각들인 흥복전과 건청궁을 복원한다.

여기에 기반시설의 정비사업이 포함되었다. 배수 및 급수시설, 소화시설, 전기통신시설, 통행로정비, 관람편의시설과 조경정비사업이 포함된다. 또한 궁에 맞지 않는 시멘트 구조물들은 전부 철거한다. 이러한 단기복원사업은 5단계로 나누어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개년 계획으로 추진된다.

##### (1) 1단계 : 침전 일곽 복원정비

1단계사업은 '90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95년 12월까지 6개년 계획으로 추진한다.

연조(燕朝)의 중심건물로서 왕과 왕비의 침전인 강녕전과 교태전을 비롯하여 주변부속건물들을 복원한다. 사업내용은 침전지역에 있는 석탑등을 경외로 옮기고 우선 발굴조사를 선행하여 지하유구를 조사한다. 발굴조사 결과와 고증자료를 바탕으로 침전 일곽에 대한 복원 설계도서를 작성하였다. 강녕전·연생전·연길당·경성전·옹지당·교태전·건순각·원길헌·함홍각·흠경각·함원전 등 전각과 주변 화랑과 담장을 복원한다.

##### (2) 2단계 : 동궁 일곽 복원정비

2단계 사업은 '94년 1월부터 시작하여 '98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사업내용은 현재 잔디와 통행로로 되어있는 구역은 발굴조사하고 동궁의 건물지 일부를 점하고 있는 전통공예전시관(구 조선총독부박물관)은 철거한 후, 자선당과 비현각 그리고 주위 행각과 담장을 복원정비한다. 그외 건춘문과 자경전 및 주위 행각을 경희루 연못을 준설하며 교란된 호안석축도 보수정비한다. 이 복원사업의 일곽 안에 있는 부도 등 9점의 석조문 화재도 경외로 이설한다.

##### (3) 3단계 : 태원전 일곽 복원정비

3단계 사업은 1997년 발굴조사 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태원전은 고종의 비 명성황후(明成皇后)가 일제의 폭도들에 의해 시해된 후

그 빈전(殯殿)으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경복궁 서북쪽 30경비단이 주둔하고 있던 지역내에 있는데 '96년까지 30경비단의 이전을 완료하고 '97년 발굴조사를 거쳐 복원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내용은 태원전·영사제·공목제와 주위 행각과 담장·어구 등을 복원하고 변형된 지형도 복구할 계획이다. 구 민속박물관(구 조선총독부미술관)을 철거하고 주변을 정비하여 현재 향원정의 남쪽에 설치된 취향교(醉香橋)를 원래의 모습대로 북쪽으로 이전 설치한다. 또한 신문문과 향원정·경희루를 보수할 계획이다.

#### (4) 4단계 : 홍례문 일곽 복원정비(국립중앙박물관 지역)

4단계 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구역은 구 조선총독부 건물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자리한 지역으로 이들 건물을 철거한 후 복원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지역의 지하에는 지하유물수장고와 지하주차장·기계실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는 어구(御溝)의 복원시 중첩되는 곳이 있어 이 지하시설들은 일부 철거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내용은 건물 철거후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지하 유구를 확인한 다음 홍례문·유화문·기별청·용성문·행각과 담장을 복원정비한다. 어구와 어도·금천교와 평교(平橋)를 복원하고 배수체계도 옛모습을 바탕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수정전 주변의 소실된 행각도 복원한다.

#### (5) 5단계 : 광화문(光化門)과 기타지역 복원정비

5단계 사업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추진한다. 현재 광화문과 남측 궁담은 제위치가 아니다. 일제가 조선총독부청사 건립시 청사의 축을 경복궁의 남북 주축선상에

맞추지 않고 시계방향으로 3.5° 틀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동십자각은 궁담과 따로 떨어져 위치하여 있고 이때 서십자각은 철거되었다. 1968년 광화문을 복원하면서 당시 중앙청의 축에 맞추어 콘크리트로 복원하였고 그 축도 3.5° 틀어지고 원래의 자리에서 14.5m 후퇴하여 들어가게 되었다.

현재 고종 당시의 남아있는 건물들 중 근정전·사정전·자경전을 제외하고 전부 주변 행각이 소실된 채 남아있다. 이런 기존 전각들은 주위 행각을 복원할 계획이다. 흥복전(興福殿)터는 아미산(峨帽山) 북쪽 현 곡수지 자리이고 건청궁터는 구 민속박물관(구 조선총독부미술관)자리이다.

사업내용은 광화문과 서십자각을 원래의 위치에 복원하고 경복궁 남측 궁담을 복원한다. 제수각·집경당·합화당·집옥재 등을 보수하고 그 주변의 행각과 담장도 복원한다. 그리고 흥복전 일곽과 건청궁 일곽을 복원정비하고 지형을 복구할 계획이다.

### 5. 건물 및 구조물 철거

현재 경복궁 내에 있는 변형시설물들과 궁에 맞지 않는 현대식 구조물들은 전부 철거할 계획이다.

#### 1) 전통공예전시관(구 조선총독부박물관)

1915년 일제에 의해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건립되었다. 예술원과 전통공예전시관으

로 활용되기도 했다. 2단계의 동궁복원사업의 시작과 함께 '95년에 철거되었다.

2) 30경비단 시설물

경복궁 서북측 경내에 자리한 군사시설물로서 3단계 태원전 복원사업의 시작으로 96년에 철거되었다.

3) 구 민속박물관

건청궁터에 조선총독부미술관으로 건립되었다.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사용되다가 현재 전통공예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3단계 사업에 포함하여 철거할 계획이다.

4) 국립중앙박물관

일제때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건립되었다. 해방후 정부청사인 중앙청으로 사용되다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하였다. 홍례문지역 복원정비사업에 맞추어 97년에 철거하였다.

5) 국립문화재연구소

근정전 서측에 자리잡고 있는 5층 콘크리트건물로 옛 문화공보부 청사로 사용되었다. 홍례문 복원공사에 포함하여 철거할 계획이다.

6) 무명각

수정전 남측에 있는 한식건물이나 변형되고 원래 궁의 전각은 아니다. 현재까지 창고로 활용되어 왔으나 97년에 철거하였다.

7)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건립되었다.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5단계 사업에 포함하여 철거할 계획이다.

8) 경복궁 관리사무소

조선총독부 부속건물로 지어졌다. 현재 경복궁관리사무소로 사용되고 있다. 5단계 사업에 포함하여 철거 정비한 계획이다.

6. 장기복원계획(長期復元計劃)

장기복원계획은 단기복원 사업이 완료되는 2009년 약 20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궁의 주요한 전각들을 우선 복원하고 외곽지역의 건물들을 순차적으로 복원하며 마지막으로 미 복원된 궁담과 조경을 정비토록 한다. 여기에는 약 400여동 9,500여평의 건물들을 복원할 계획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경복궁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97년 구 조선총독부건물의 철거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연속을 고려하여 홍례문과 주변행각 복원사업은 '97년부터 착수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99년에 완공될 것이다.

공정별 추정사업비(199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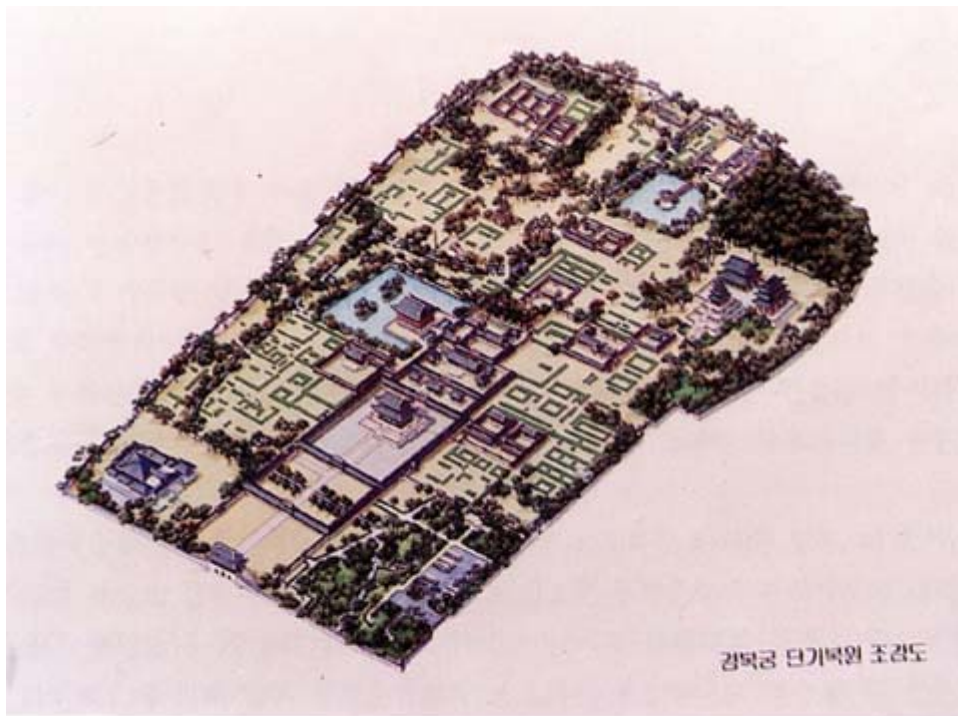
단위 : 천원

1)단기복원 정비계획						
명칭	양식	규모	단위	단가	금액	비고
1단계 복원정비	침전지역(기 시행중)	1	식		20,700,000	
2단계 복원계획	동궁지역	1	식		17,100,000	
3단계 복원계획	빈궁지역	1	식		30,900,000	
4단계 복원계획	홍례문지역	1	식		33,400,000	
	수정전지역	1	식		7,800,000	
	광화문,서십자각,외곽담장	1	식		26,600,000	
	자경전지역	1	식		1,000,000	
	집경당 함화당 지역	1	식		5,200,000	
	제수각 지역	1	식		2,700,000	
	집옥새지역	1	식		2,500,000	
	홍복전지역	1	식		6,300,000	
	건청궁지역	1	식		9,500,000	
	미복원건물지정비	1	식		15,200,000	
합계					178,900,000	
2)장기 복원정비계획						
가)건조물복원정비		8,000	평	25,000	200,000,000	
나)전기소화설비		1	식		5,500,000	
다)편의시설		1	식		1,400,000	
라)시설부대비	사업비의 10%	1	식		20,100,000	
합계					227,000,000	



경복궁 현황 조감도

경복궁 현황조감도(1990년)  
경복궁 현황조감도(1990년)



경복궁 단기복원 조감도

경복궁 기본궁제 복원 조감도(2009년)  
경복궁 기본궁제 복원 조감도(2009년)





경복궁 복원 조감도

경복궁 완전 복원 조감도

경복궁 완전 복원 조감도